

2014년10월07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⑤	③	②	⑤	②	⑤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③	①	④	①	①	④	③	①	③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A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에 A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점심때가 되었다. 하인이 밥을 지어 왔는데 밥에 콩이 들어 있었다. 집에서는 흰쌀만 가져왔기에 A가 하인에게 연유를 물어보니 남의 밥에 있는 콩을 따서 넣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A는 바로 수저를 놓고 하인으로 하여금 밥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콩 값을 치르게 한 뒤에야 식사를 하였다.

- ① 타인과 더불어 재미있는 정신적 유희 활동을 즐긴다.
- ②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의 가르침에 따른다.
- ③ 타고난 본능에 따라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④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따라 도덕적 옳음을 실천한다.

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다.

2.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김매고 밭 가는 일을 계속하면 농부가 되고, ㉠ 예(禮)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그러나 타고난 성정(性情)에 따라 행동하고 학문을 닦지 아니하면 소인이 된다.
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이요,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 예(禮)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이니, 인의예지는 진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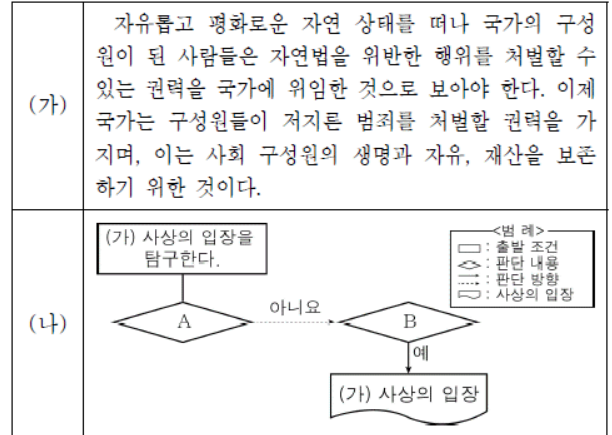
- ① (ㄱ)은 인간의 본성을 확충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 ② (ㄱ)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 ③ (ㄴ)은 타고난 인성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 ④ (ㄴ)은 자연적 본성을 왜곡하고 어지럽히는 규범이다.
- ⑤ (ㄱ), (ㄴ)은 하늘이 부여한 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세계의 모든 존재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인다. 그런데 존재들이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위해서는 존재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거나 혹은 목적을 정해 주고 이끄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 지적인 존재가 신이다.

- ① 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다.
- ② 신앙과 이성은 대립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③ 신이 곧 자연이며, 자연은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 ④ 신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도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⑤ 신은 논리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며,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이다.

4. (가) 사상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국가는 구성원의 동의와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가?
- ② A: 국가의 구성원들은 법률의 구속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 ③ B: 국가의 통치 권력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가?
- ④ B: 현명한 절대 군주가 통치할 때 이상 사회가 실현되는가?
- ⑤ B: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 기구인가?

5. 다음은 어떤 동양 사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ㄱ)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목표	㉠
수행 방법	피로움을 꿰뚫어 알리고 노력해야 하고, 피로움이 일어남을 꿰뚫어 알리고 노력해야 하며, 어디서 피로움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꿰뚫어 알리고 노력해야 하고, 피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道)도 꿰뚫어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

< 보 기 >
ㄱ.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다.
ㄴ. 고동의 근원인 어리석음과 애욕(愛慾)을 제거한다.
ㄷ. 지혜를 얻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ㄹ. 세속의 구속에서 벗어나 텅 빈 마음[虛心]으로 노닌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6. 그림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②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분별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작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덕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 ④ 무위(無爲)의 삶을 살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사람들이 자연에 동화될 수 있도록 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배움이다.○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자신의 일을 잘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div><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A)</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div> <p>[가로 열쇠] (A):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관한 학문으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어원을 지님. 교부 ○○, 스피노자 ○○ (B): 외물(外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위의 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상. 지인, 천인, ○○</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A)																			
	(B)																				

- ① 생산자들 중에서 지혜의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 ②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다.
- ③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다.
- ④ 생산에 종사하는 동시에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⑤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이다. 여기서 쾌락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의 평화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연적인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
을: 쾌락은 선이며 고통은 악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쾌락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시인(是認)된다. 쾌락의 크기는 강도, 확실성 등의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 ① 갑은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검소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쾌락의 양적·질적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동기에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공익 증진이 개인의 행복 증진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표시를 한 학생은? [3점]

- 행위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행위의 준칙이 의무의 법칙과 합치되어야 한다.
-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조차 제한 없이 선택하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관점 \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 법칙은 경험적 증명을 필요로 하는 법칙이다.	√	√		√	
선의지는 선행을 하려는 의지로서, 의무감이라고 할 수도 있다.	√			√	√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	√		√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⑤ 무

10.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이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번뇌에 빠진 중생들이 바른 견해를 일으켜 자기의 마음에서 본래의 성품을 보면, 모두 다 단박에 깨닫게 된다.
- 을: 진리는 단박에 깨달아 알 수 있으나, 그릇된 습기(習氣)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으니 차례대로 제거해야 한다.

- ①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서만 본성을 직관할 수 있는가?
- ② 마음의 번뇌를 없애야 정(定)과 혜(慧)를 닦을 수 있는가?
- ③ 공(空)이 독자적인 본성을 갖는 실체임을 이해해야 하는가?
- ④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부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가?

⑤ 직관적 체험인 선(禪)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가?

11.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자유 경쟁과 계획의 방식을 배합하는 것은 한 가지를 일관되게 적용할 때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경쟁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방식이고,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생산은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계획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와 계획을 동시에 지지한다.

- ① (가):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 ② (가):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나): 계획 경제를 추구하되 일정 부문 사적 소유도 인정해야 한다.
- ④ (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 ⑤ (가), (나):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1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세계는 고뇌로 가득 차 있다. 나의 윤리는 이 세계가 피해야 할 곳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려는 의지를 기각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의지의 완전한 부정 없이는 참다운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
(나)	_____ ㉠ _____.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① 철저한 금욕적 생활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하라.
- ② 인간은 자유롭도록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임을 자각하라.
- ③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 ④ 생명 의지는 복돋워야 할 거룩하고 신성한 것임을 명심하라.
- ⑤ 직관이나 감정보다는 이성과 지식에 근거해서 삶을 성찰하라.

13.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양물(洋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갈 뿐이다.
(나)	동양인들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고, 서양인들은 형이하(形而下)에 밝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器)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가 평정될 것이다.

- ①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② 유교적 전통에서 형성된 가치 체계와 문물을 지켜야 한다.
- ③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유교적 도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국가 발전을 위해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 ⑤ 백성의 도덕성을 함양하여 국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14. 갑, 을은 조선 시대의 유학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성(人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선을 좋아해서 측은(惻隱),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해서 수오(羞惡),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인·의·예·지를 이룰 수 있다.
을: 성(性)에는 인·의·예·지·신이 있고, 정(情)에는 회·노·애·구·애·오·욕이 있으니, 오상(五常) 이외에 따로 성이 없고 칠정(七情) 이외에 다른 정이 없다. 칠정 가운데 인욕(人欲)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이 사단(四端)이다.

- ① 사단을 확충해야 인의예지가 형성되는가?
- ② 사단은 도덕적 감정이고 칠정은 일반적 감정인가?
- ③ 사단은 인의예지가 마음에서 발현된 순전한 감정인가?
- ④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획득되는 것인가?
- ⑤ 사단은 인의예지가 마음에 내재함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인가?

15.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ㄱ)~(ㄴ)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밑줄 친 'A 사상'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A 사상은 근대 철학이 특정한 도덕 원리나 법칙의 준수만을 강조하였고 행위자의 감정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요소는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A 사상은 의무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고 유덕한 품성을 지닐 것을 강조하였다.

◎ 학생 답안

A 사상은 ㉠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행위 중심의 윤리 사상이며,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상은 ㉢ 도덕을 공동체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 선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 또한 ㉤ 모범이 되는 인격 모델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ㄴ)

16.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이 외부로부터 부여된 가치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개인의 삶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나아진다.
(나)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가질 수 없다. 개인의 삶은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둘 때에만 나아진다.

- ① 인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삶을 구성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 ② 공동체를 개인들이 단순하게 결합한 집합체로 여기면 안 된다.
- ③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알아야 한다.
-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선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⑤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개인에게 장려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17. 갑,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덕 판단을 할 때 정서적 요인보다 인지적 요인이 핵심 역할을 한다. 도덕 발달은 도덕 규범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인지 구조의 변화이다.
을: 도덕 판단을 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 이입과 공감을 중시하고, 가상적 딜레마보다 현실적 딜레마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여성의 도덕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윤리가 필요하다.

- ①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도덕성 발달로 보아야 한다.
- ② 도덕적 행위를 위해 최고 원리인 정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 ③ 타인에 대한 배려가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 ④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 ⑤ 도덕적 갈등은 보편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8.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가)
갑: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 무지를 자각해야 보편타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을: 사물들이 나에게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대로이고,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나는 그대로이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참된 앎은 영혼의 수련으로 얻어지는 객관적 인식이다.
- ② A: 도덕적 덕은 옳은 행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 ③ B: 시비와 선악의 판단 기준은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다르다.
- ④ B: 옳음을 아는 사람도 의지가 나약하면 악행을 할 수 있다.
- ⑤ C: 세상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학문의 주된 관심사이다.

19. 갑은 중국의 유학 사상가이다. (ㄱ), (ㄴ)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갑: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개별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면 사물들이 모두 그 이치[理]를 얻게 된다. 이처럼 내 마음의 양지를 극진하게 이루는 것이 치지(致知)이며, 사물들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분석]
갑의 주장은 “ㄱ”라는 입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 반론은 “ㄴ”라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ㄱ	ㄴ
①	치지란 나의 지식을 확충하는 것이다.	마음의 안팎 모두에 이치가 있다.
②	치지란 나의 지식을 확충하는 것이다.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
③	격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마음과 이치는 둘로 분리될 수 없다.
④	격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
⑤	격물치지란 타고난 앎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마음과 이치는 둘로 분리될 수 없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20. 밑줄 친 ‘나’는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ㄱ)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생각해서 늘리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생각해서 줄이면 둘 다 고통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나는 긴 것은 긴 대로 두고 짧은 것은 짧은 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옛날 노나라의 어느 임금은 귀한 바닷새가 궁궐로 날아들자 연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러자 그 새는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슬퍼져서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 그 임금은 ㄱ

- 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자 사회 규범을 무시하였다.
- ② 도(道)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물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 ③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한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 ④ 주관적 인식에 사로잡혀 사물의 본성을 존중하지 못하였다.
- 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心齋] 만물을 하나로 보았다.